

7. 시간은 흘러간다 The Ticking Clock



다음은 독신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서로 잘 아는 싱글 선교사들 간에 하는 대화이다.

팻(Pat): “나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벌써 39세이고,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한다하더라도, 첫째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면 난 60세가 넘을 거야.”
크리스(Chris):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39세야. 결혼을 하더라도 몇 년만 있으면 아이를 아예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될 거야.”

팻과 크리스 모두 자신들의 신체에 생물학적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남성, 혹은 여성의 문제?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든다. 생물학적 노화는 누구에게나 큰 문제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남성 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 **폐경기.** 여성의 경우 대체로 40~60세 사이에 생리가 서서히 멈추고,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사라는 임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다(창 17:18, 18:12). 호르몬의 변화도 폐경기에 일어난다. 남성의 폐경에 대해 논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성은 80대에도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성인기에 호르몬의 변화가 서서히 줄어들지라도, 여성처럼 특정한 나이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지는 않는다.
- **싱글 여성과 싱글 남성 간의 비율.** 오랜 시간 사역을 한 선교사 중에 싱글 남성보다는 싱글 여성의 수가 훨씬 많다. 소속 기관, 분야, 팀에 따라 성비율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싱글 여성 대 싱글 남성의 비율은 3:1에서 7:1이다. 싱글 여성 선교사 수가 싱글 남성 선교사 수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여성의 경우 선교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배우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 **유전적 태아 기형.**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다운증후군 발병률은 산모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30세의 경우 1000명 중에 1명, 35세의 경우 400명 중에 1명, 40세의 경우 100명 중에 1명, 45세의 경우 30명 중에 1명이다. 다운증후군 발병률은 아버지의 나이에 따라서도 높아지지만, 어머니의 경우에 비하면 그 정도가 미비하다.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를 만나는 상황 별로 장 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선교단체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이것은 배우자를 만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소명의식, 가치, 신념을 갖고 있고, 양쪽 모두 다문화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싱글 남성에게 비해 싱글 여성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남성에게 있어 더 유리하다.

반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한 기관에 싱글 남성 한 명 당 세 명의 싱글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모든 싱글 남성이 싱글 여성의 3분의 1과 결혼한다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싱글 여성은 미혼의 상태로 남게 된다. 이것은 그다지 유쾌한 확률은 아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만나는 경우

몇몇 싱글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현지인과 결혼을 한다. 이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양쪽 모두 현지 문화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선교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해당 국가에서 성장한 제3의 문화 자녀(Third Culture Kid; TCK)이거나 비슷한 문화의 사람인 경우에는 더 좋다.

단점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정직함과 체면의 문제 등 일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깊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싱글 여성은 자신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만난 마초적인 성격을 지닌 남성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남성이 결혼 이후 자신을 속박하고자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싱글 남성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결혼 이후에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여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부모, 즉 자신들의 조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 있다.
- 조부모, 사촌 등 친인척과 당신의 자녀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할 수 있다.
- 당신 국가의 국경일을 기념하거나, 전통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 농담을 설명해 주어야 하거나,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수도 있다.
- 당신의 자녀는 당신과 다른 문화적 전제조건들을 숙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
- 당신 배우자의 인종 때문에 차별을 당할 수 있다.
-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허용할 수 없는 성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같은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싱글 선교사가 같은 국적의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역할 혹은 정직함과 체면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양쪽 모두 동일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내재화하고, 본국의 친인척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물론 이들은 제3의 문화 자녀(TCK)가 되고, 현지의 일부 문화적 가치를 받아들이게 된다.

같은 ‘고국’ 사람과 결혼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배우자가 다른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결혼 전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부름을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하지만, 결혼 후에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선교사는 다른 나라에서 선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명의식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E-harmony.com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풀러신학대학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 년 동안 심리학, 상담, 행정, 연구, 작문을 가르쳤던 닐 클락 워렌(Neil Clark Warren)은 e-harmony.com을 만들었다. 그는 ‘적합성의 29가지 차원’

을 사용하여 공통 관심사 및 뿌리 깊은 가치를 기반으로 독신자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수 백만 명의 싱글들이 설문조사를 했고,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평가된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 받았다.

이같은 만남의 장점은 만약 테스트가 정확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했다면, 싱글 선교사가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물론 적합한 사람들 간에 만남이 주선되고 나면, 이후 해당 커플들은 그들끼리, 또는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 E-harmony는 단지 사람들을 서로에게 소개만 시켜줄 뿐이다.

단점은 모든 사람들이 설문조사 시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직하게 설문조사에 답하지만, 일부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나, 원하는 상대에 대해 왜곡된 답을 할 수도 있고, 아예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답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증할 수도 없고, ‘친구’가 대신 작성을 해줬는지도 판단할 수도 없다. 단지 조심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독신으로 남는 것

예수님과 바울은 독신으로 남는 것을 지지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였고, 독신으로 지낼만한 자는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셨다(마19:10-12). 고린도전서 7장에 서 바울은 독신으로 남는 것이 좋은 여덟 가지 이유를 말했다(고전7:1, 8, 26-27, 32, 34, 38-40). 바울은 독신으로 남고 독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며,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것 보다 더 낫다고 말한다.

또한 예수님과 바울은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제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제안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독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마 19:11). 바울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부도덕함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 혹은 약혼자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혼해야 한다(고전7:2, 9, 36)고 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독신으로 남아야 하는 과부와, 남으면 안 되는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남편에게 충실했고 행실이 바른 60세가 넘는 과부만이 교회 명부에 올라갈 수 있다(딤후5:9-10). 그러나 60세 이하의 과부는 정욕으로 인해 결혼을 원할 수 있으니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울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젊은 과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다(딤후5:11-15).

희망은 있다!

독신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선교사들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몇몇은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고, 입양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결혼하고,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약 20년 동안 여러 타문화에서 선교활동을 한 싱글 여성 선교사가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혼이었지만, 인연을 만나 결혼을 결심한 순간 바로 아내, 어머니, 며느리, 할머니가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20년 혹은 30년 이상 걸쳐서 새로운 역할을 하나씩 맡게 된다. 그 선교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혼하고, 고국에 돌아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1년을 보냈다. 희망은 분명히 있다!

현지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선교활동을 하던 커플이 있었다. 그 커플은 처음에 결혼하지 않고, 만남을 유지하다가 4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50대 초반에 남자 쌍둥이를 낳았다! 그들은 쌍둥이를 기르면서 현지에서 계속 선교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있다. 결혼을 원하며, 독신 생활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분명히 있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